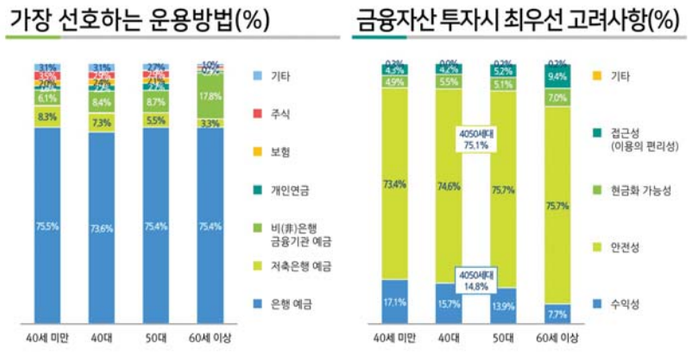
4050세대,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구입

보험개발원, 보유자산 70% '부동산'
금융자산 투자 노후대비 70% 예적금
보험2%대…최우선 고려사항 '안전성'



4050세대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로는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선호했지만 보험 선호도는 상당히 낮았다.

28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18 KIDI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4050세대 보유자산의 약 70%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었다. 그럼에도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투자목적으로는 노후대비를 꼽았다. 금융자산으로는 약 70% 은행예금을 선호한 반면 보험 선호도는 2%대에 그쳤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4050세대의 자산 70% 이상이 실물자산에 편중됐다.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비율은 각각 72.6%, 27.4%다.

실물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1.0%에 달했다. 금융자산 중에선 적립예치식 저축이 71.5%로 가장 높았다.

4050세대의 10명 중 약 6명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자기 집을 보유했다. 40대의 거주주택 종류별 비중은 아파트가 65.2%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단독주택 19.9%, 연립 및 다세대주택 13.1% 순이다.

50대 역시 아파트(54.6%)거주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단독주택과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각각 30.3%, 13.4%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은퇴를 앞둔 4050세대의 보유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향후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유동성 등 제약이 우려된다"면서 "나이가 들수록 아파트 거주자는 줄어들며 자가보유의 입주형태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40대와 50대 모두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응답률이 각각 33.8%, 36.6%로 가장 높았다. 저축 및 금융자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32.1%, 35.1%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노후대책을 꼽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후대책을 위해 금융자산에 투자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사고나 질병을 대비해 투자하겠다는 비율은 낮았다. 사고 및 질병대비를 위한 투자는 40대 1.1%, 50대 1.7%에 그쳤다.

금융자산으로는 안정성 높은 은행예금을 선호한 반면 보험 선호도는 낮았다. 은행예금을 택한 40대와 50대는 각각 73.6%, 75.4%에 달한 반면 보험은 2.4% 2.1%로 매우 낮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금융자산 투자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전 연령대에 걸쳐 안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도 "보험구입 의향자만을 대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고려사항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4050세대는 국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인구비중은 32.9%이며 10년이 지난 오는 2028년에도 3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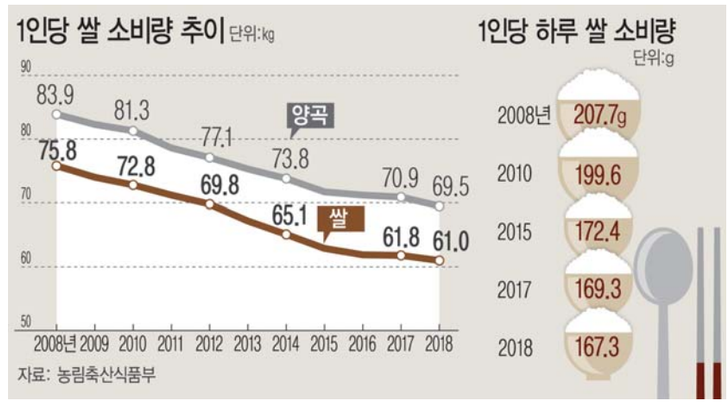
2가구 중 1가구는 4050세대 가구주이며 이들 가구자산이 전체 가구자산의 54.8%를 차지했다. 가구 평균자산은 40대 3억9000만원, 50대 4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구평균 부채는 40대가 8533만원, 50대가 8524만원을 보유했다. 부채 중 금융대출이 약 74%를 차지했으며 이중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담보대출은 거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 부담으로 10명 중 8명이 소비를 줄였다고 답했다. 4050세대 가구당 소득은 연간 6256만원이다. 이중 실제 처분가능 소득은 5079만원, 연간 총 지출액은 4263만원이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4년부터 2년마다 고령화·은퇴 관련 통계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KIDI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2018 KIDI은퇴시장 리포트'는 ▲노후소득 보전을 위한 개인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부양 부담, 온전한 노후생활은 어디에 ▲보험사, 비은퇴자의 전문적 노후 준비 파트너 등 7개 주제로 구성된다.



도시락 등 조리 쌀 소비 29%↑
'해 먹는 밥' 보단 대체식품 선호
통계청, 28일 '2018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 발표
1인당 쌀 소비 또 역대 최저…하루 2공기도 안 먹어

집에서 직접 밥을 해 먹는 데 들어가는 쌀의 양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등 조리 식품에 원료로 사용되는 양은 5년째 증가 추세다. 국민들의 식사 패턴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67.3g으로 1년 전(169.3g)보다 2.0g(1.2%) 감소했다. 1980년 조사가 잠시 중단된 후 1997년부터 재조사된 이래 1인당 1일 양곡 소비량은 매년 내리막길을 걸었다.

통상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은 90g 정도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밥을 두 공기도 먹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루 쌀 소비량이 줄면서 국민 한 사람의 연간 쌀 소비량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년 전(61.8kg)보다 0.8kg(1.3%) 감소한 61.0kg으로 30년 전인 1988년(122.2kg)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1963년 105.5kg 수준이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1996년 104.9kg을 기록하며 33년 만에 최저치를 새로 썼었다. 이후 지난해까지 22년 연속 최저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식료품 및 음료 부문 제조업 부문에서 제품 원료로 사용된 쌀의 양은 75만5664t으로 1년 전(70만7703t)보다 4만7961t(6.8%)이 늘었다. 가구 부문에서의 쌀 소비량이 지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과 달리 사업체 부문에선 2014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주정 제조업(18만7652t·24.8%)과 떡류 제조업(17만2317t·22.8%)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다.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및 기타 식사용 조리 식품(14만7474t·19.5%)에 사용되는 양도 상당했다. 특히 이 부문에서의 소비량은 1년 전보다 29.0%나 뛰어 예년(14.1%)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집에서 밥을 직접 해 먹는 빈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체 식품을 소비하는 경향은 늘어나 식사 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쌀 소비량의 절대 수치가 줄었다기보단 가구 부문에서 줄어든 소비량이 식품 제조업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 제조업에서만 늘어난 쌀 소비량이 7만2000t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리쌀, 밀가루, 잡곡류(옥수수·좁쌀·수수쌀·메밀·율무 등), 두류(콩·팥·땅콩·기타 두류), 서류(고구마·감자) 등을 포함한 기타 양곡의 소비량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줄었다. 국민 한 사람의 연간 기타 양곡 소비량은 8.4kg으로 1년 전(9.1kg)보다 0.7kg(7.7%) 감소했다. 전체 양곡소비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1%로 1년 전(12.8%)보다 0.7%p 낮아졌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잡곡(1.4→1.5kg) 소비량만 홀로 늘었다. 잡곡 소비량은 2009년(0.5kg) 이후 9년 만에 3배 수준으로 뛰었다. 이밖에 서류(3.0→2.6kg), 두류(2.2→1.9kg), 밀가루(1.2→1.1kg) 등은 모두 줄었다. 보리쌀 소비량은 1.3kg으로 전년과 같았다.

쌀과 기타 양곡을 포함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중 98.5%가 주·부식용으로 소비됐다. 장류, 떡·과자류 등 기타 음식용으로 소비된 비중은 1.5%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8년(4.9%)의 1/3에도 못 미쳤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의 양곡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군대·교도소·고아원·요양원 등 집단시설에서의 소비량은 조사 대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전남 수산물 수출 2억2300만 달러

전남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수산물 수출액이 2억2300만 달러를 기록, 전년(2억 1600만 달러)보다 3.1%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국 23억 7700만 달러의 9.4%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또 2017년 사상 첫 2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년 연속 역대 최고치 수산물 수출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수출 주력 품목은 김과 전복으로 각각 1억 900만 달러, 4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은 일본?미국의 조미김 등 수요 증가로 전년보다 3.7% 늘어난 규모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수산업의 반도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복은 한류 확산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사드 갈등 해소 등으로 수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완도~제주 뱃길 카페리 하루 2항차로 확대

㈜한일고속, 실버클라우드 오전·오후·심야 운항

완도와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호 '실버클라우드'의 운항 횟수가 하루 2항차로 늘었다.

㈜한일고속은 지난해 10월25일 신규 취항한 크루즈급 카페리 '실버클라우드'가 하루 2항차 운항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현대화펀드사업을 통해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된 '실버클라우드'는 내륙에서 제주까지 가장 짧은 항로인 완도~제주간을 2시간30분만에 운항하고 있다.

취항 이후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완도와 제주 지역민, 관광객, 카페리 여행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하루 2항차로 확대했다.

'실버클라우드'는 오전, 오후, 심야 등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해 여객의 이동 편리성과 화물 수송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야시간대에는 한라산 등반에 나서는 여객이나 빠른 이동을 위한 화물 이용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클라우드'에는 쾌적한 선내 시설과 함께 게임룸, 키즈룸, 카페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2항차 운항 시간은 완도발 2회(오전 2시30분, 오후 4시)와 제주발 2회(오전 7시20분, 오후 8시30분)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은 휴항이다.

완도=김광수 기자